



해외

WORLD

# 마하보디대탑 관리권 놓고 대립

## 인도행동위원회, 비하르주정부에 운영권 강력 요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불교유적지를 불자가 관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인도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대탑이다.

인도 언론인 시피타컴(sify.com)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인도 불교계 스님들이 비하르주 보드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대탑과 사원에 대한 관리권을 비하르주(州)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하보디대탑은 255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에서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적지로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신성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교유적을 비하르 정부는 1949년 관리규정을 세워 불교계가 운영권을 요구할 때마다 규정을 언급하며 거부해왔다. 게다가 정부가 규정한 개정작업까지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불자들이 스님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

인도행동위원회 위원장 브하단트 아난드(Bhadant Anand)회장은 "비하르 정부가 인도 불자의 마하보디대탑의 운영권 요구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대탑.

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위원회는 네트워크를 강화, 조직을 인도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대탑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난드 회장은 "우리는 위원회 입회를 위한 멤버들을 결성해 인

도 전지역에 위원회사무소를 배치하고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여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난드와 같은 인도 스님들은 정부의 마하보디대탑 관리 규정 개정 지연에 대해 "대탑을 비불자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정부의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우리는 왜 비불자들이 성스러운 붓다 사리를 관리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난드는 "사원, 교회, 이슬람 성지 등은 모두 해당 종교계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마하보디대탑과 사원만은 그렇지 못한가"라며 "1949년 이후 불교계는 마하보디 관리에 대한 권리가 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원을 운영하는 '보드가야사원 운영위원회'는 불자 네 명과 힌두교인 네 명이 보드가야 지역 행정관과 3년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아은 기자

중국, 일본, 베트남, 파라과이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이 한데 모여 무지개빛 희망가를 불렀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12월 4일 출범한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강대 매리홀에서 기념식과 함께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보선 스님, 무원 스님(한국다문화센터 정책자문단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진영 의원(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김세형 매일경제 이사 등 내빈을 비롯해 200여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는 한국다문화센터 2기 임원진 선출과 법무부로부터 컴퓨터 200대를 받는 전달식, 2009년 다문화사업 후원사 감사대 전달 시간 등을 가졌다.

2부 행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리어들은 '개구리' '푸르다' 등 동요와 '도라지' '경복궁타령' 등 민요를 합창했으며 가수 서영은, 경찰악대의 찬조출연이 이어졌다.

정치와 종교를 초월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글로벌 사회



7개국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이 12월 4일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1주년을 맞아 합창공연을 선보였다.

를 선도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다문화사회센터는 창립 이래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센터는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1:1 멘토링 △국회다문화포럼 개최 △다문화통합기본법 발의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 △다문화정책자문단 출범 등의 사업에 주력해왔다.

센터는 자녀(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부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대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케피터즈(kepitaz) 봉사단'을 출

범시켜 3~8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상대로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다.

멘토링을 받는 자녀 연령층은 두 살 배기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하며 방과 후 학습지도 형태로 진행됐다.

김성희 사무총장은 "제1기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증적으로 학습 소외를 겪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보살필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선발하는 2기는 화상(온라인교육) 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학년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다문화센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코리아'는 7월에

창단매 2회 2시간씩 합창 및 안무연습을 해오고 있으며 'KBS 사랑나눔콘서트' '드림하모니 합창제' 등에 출연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전국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를 계획해 다문화사회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다문화정책자문단을 8월 발족해 국회다문화포럼에 대한 정책적 소프트웨어 비롯, 한국의 다문화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교육 △문화 △건강 △법률과 인권 △언론 △거버넌스(민관학) 통합 연계망의 6개 분과별로 매월 토론회를 열어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김성희 사무총장은 "중도편입,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교육과 일반인의 다문화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외에 2010년에는 이들을 위한 '다문화마을'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다문화관련 교육기자재,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종합연구센터와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선진 다문화사회를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bohying@buddhapia.com

# 파키스탄 불교유적지 파괴 '위협'

## 우상 숭배 반감 지닌 탈레반 반군 문화유산 포격 위협

파키스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탈레반 군에 의해 간다라 유적 등 고대 불교 유산이 파괴될 위험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펀자브주(州)북서쪽에 위치한 인근 불교유적지 탁실라(Taxila)의 박물관 큐레이터 압둘 나시르 칸은 최근 "우상 숭배에 반감을 지닌 탈레반 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은 곧 있으면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며 "탈레반 반군은 문화의 적이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내

버려 둘 순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0km 떨어진 소도시인 탁실라는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 불교 중심지로 고고학 유산이 많은 곳이다.

음악·예술·여성교육·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탈레반은 불교 유산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어서 2001년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500년이 된 바미안석굴의 불상 2개를 폭파해 파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파키스탄 탈레반이 북서부 지역과 이슬라마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문화유산 역시 포격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끊어졌으며 진행 중이던 20여개의 외국의 연구개발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내전이 격화된 스와트 지역의 경우 박물관 건물이 포격을 맞아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아은 기자

# 소액대출 심포지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은)은 12월 22일 사회복지정책포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개최한다.

7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주제로 다룬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최홍관 팀장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1부 발제를, 오정민 전 사회복지법인 내원마하병원 기획행정실장이 '불교계 복지시설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과 실제'를 발표한다. 이아은 기자

# 송산노인복지관 '최우수' 평가 받아

## 보건복지가족부·경기복지미래재단 등에 '최고 점수'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불교계 복지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은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잔재회가 주관하는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이사장 서상묵)에서 시행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등 불교계 최우수 복지관으로서 자리를 다지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9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6개 분야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된 것이다. 운영위원장 일연 스님과 석봉 스님은 "이번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부시 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노인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실사로 1999년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해왔다. (031)852-2595

이아은 기자



송산노인복지관이 특화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1·3세대 밴드봉사대의 활동 모습.

천機秘傳 庚寅年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천機秘傳 庚寅年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장짜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 百 초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